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심종석
(대구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오늘날 십일조에 관한 본질적 기능과 그 안에 담긴 숭고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앙적 차원에서 이것이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로부터 오늘날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저마다가 감당하여야 할 십일조의 바람직한 봉헌자세와 실천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요의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십일조 용처와 쓰임새는 명확히 구별되고 선별되어야 한다. 또한 십일조에 담긴 본연의 정신대로 구제와 구휼 및 그밖에 이와 관련한 선한 사업에 소비되어야 한다.

둘째,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십일조의 진정한 모습은 이 시대가 구현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모습과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며, 소산의 십분의 일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를 불문하고, 신앙적 양심과 결단에 따라 아낌없이 그리고 즐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봉헌하여야 한다.

셋째, 크리스천의 참다운 박애정신은 이 시대가 구현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표창된 보다 가중된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세상을 향한 구제와 구휼의 정신은 마땅히 십일조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 또한 이러한 십일조에 깃든 박애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여 그 숭고하고도 선한 뜻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전향적 의지와 태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주제어 : 십일조, 공평, 정의, 크리스천의 사명, 구제

I. 머리말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justice)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준칙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풀이된다. 여기서 ‘도리’(right or duty)는 ‘마땅히 행할 바른 이치 또는 방도’를 뜻한다.

기독교의 진수로서 사랑의 실천은 모름지기 정의의 실현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시각에서(Brunner, 1945; 이계준, 1968), 크리스천은 사랑의 실천을 인격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간접적인 방법, 곧 사회적 통념에 기한 공평과 정의의 통해서도 실현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보아, 이는 이 시대 크리스천이 감당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이라는 취지에서 널리 신학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종고, 1981). 여기서 정의의 실현은 이른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법의 정신으로서 ‘공평’(equity)이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현재 어느 때보다 정의와 공평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진 자가 덜 부담하거나 우선시되고, 오히려 덜 가진 자가 더 부담하거나 등한시되는, 이른바 ‘상대적 불공평’(relative injustice)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불공평’은 어느 사회에서나 계층 간 반목과 질서를 촉발할 수 있는 동인으로서, 그것이 싹이 자라 도를 넘게 되면, 언젠고 국가나 사회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까닭에,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일련의 제도적·법적 장치로서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살피기에 정의와 공평의 절대적 가치는 국가나 사회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개인의 인권이나 법적 지위 그밖에 공평 내지 평등사상 등에 용해되어 저마다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념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정의가 왜곡되어 상대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상은 어디서나 쉽게 엿볼 수 있다.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 오늘날 ‘인본위’(human oriented)의 절대적 가치라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이 성서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가르침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대한 논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미 6:8),¹⁾ 이것은 율법이나 규례보다도 더 중한 가치로서 실현해야 하는 것에 뜻을 두고 계시다면, 그 실천의 당위와 방법은 응당 구별되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논점에 배경을 두고, 사회통념에 기한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크리스천의 사명이자 책무로서 ‘십일조’(tithe)에 관한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병합하여, 신앙적 차원에서, 또한 사회통념에 비하여 보다 진일보한 숭고한 가치로서, 이 시대 크리스천이 감당하여야 할 십일조의 바람직한 봉헌자세와 실천방법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 일컫고 있는 ‘크리스천의 사명’은, 이 시대를 향한 정의와 형평의 구현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형편이나 능력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결코 좌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박애사상에 본질에 두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본질을 전제해 두고, 오늘날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다시금 재정립하여 바로세울 수 있는 단초를 이끌어, 이로써 지금까지 십일조에 관한 난상의 이슈에 일절 구애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 공의에 의지하여 이 시대를 새로이 계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숭고한 사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는 십일조에 관한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명료히 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향하신 추상같은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또한 이를 감당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특단의 계기를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각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바, 그 뜻 깊은 사명을 바로 새기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일련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II. 십일조 봉헌에 관한 주장과 각론의 비판

2.1 개요

생각건대 우리가 바친 십일조가 확고부동한 신앙의 대원칙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필경 지금과 같은 십일조에 관한 난제는 일시에 불식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이고, 이로써 십일조를 봉헌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여하히 죄가 되기에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세워져, 그 옛날 십일조는 운명을 다한 유명무실한 규례라는 매듭이 확고히 묶여져 있다면(마 16:19, 18:18),²⁾ 십일조를 봉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이분법적 논거 중 어느 하나에 십일조 봉헌에 관한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오늘날 십일조에 관한 난제는 촉발되지 않았음이 자명할 것이지만, 주지하듯 십일조 봉헌에 관한 찬반론은 지금까지 애써 거두려는 자와 이에 맞서 바치지 않으려는 자 간의 격론을 부추겨, 가일층 첨예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십일조에 관한 찬반대립이 지금과 같은 형편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실상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십일조에 관한 찬반론은 그 실제에 있어 공히 나름의 신학적·실천적 근거와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실체는 보통의 크리스천에게도 여파를 미쳐, 예컨대 자신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제자리를 헛돌고 있는 소위 ‘링반데룽효과’(ringwanderung effect)에 침잠케 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바로 보아야 할 사실로서, 그 어떠한 주장도 십일조에 관한 절대적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서에서는 십일조에 관한 다양한 성격과 모습을 전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만약 한편의 주장에 힘을 실어 당해 논거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일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의 판단은 교리적 또는 신앙적 차원에서가 아닌, 작금의 시대상황에 기한 단편적·사실적 차원에서의 적시임을 되짚어 둔다.

생각건대 그간 십일조는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라는 강론이나 주장을 접할 때마다(김진석, 2010; 이종록, 2006; 장재봉, 2015; 전삼용, 2015) 보통의 크리스천이라면 한번쯤은 적잖은 고민과 회의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당초 십일조에 관한 난제를 촉발한 근인이었을 것이라 본다.

요컨대 찬성론은, 십일조는 지난날 구약의 독특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관습으로 이제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주장(김수나, 2008; 성기문, 2003), 십일조는 현대교회가 축복과 죄의 조건에 결부하여 온갖 폐단과 악습을 조장하는 수단으로서 이후로 그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원용국, 2007; 김진석, 2010; 정재영, 2011) 등의 반대론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9).”,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

그 밖에 이도저도 아닌 절충적 시각에서 십일조는 크리스천 저마다의 신앙적 임의처분에 두어 결단코 강요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한종호, 2007; 김인환, 2014) 등은 이러한 양자의 주장과 함께 가뜩이나 어지러운 신앙적 양심을 더욱 혼란케 하여 급기야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분과 사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논제에 기하여 십일조 봉헌에 관한 주장을 기술편의상 찬성론, 반대론 그리고 절충론 등으로 삼분하고 이에 각론의 요의와 평가를 덧붙여 본고의 배경에 두고자 한다.

2.2 찬성론

2.2.1 요의

십일조 봉헌의 찬성론은 그것이 성서상의 명약관화한 규례라는 사실을 앞세워,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크리스천의 의무이자 지상과제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에 말라기서의 기록을 전면에 두고 있다(말 3:8-10).³⁾

한편 찬성론 일각에서는, 십일조가 규례로서 그리고 지상과제라는 수준을 뛰어 넘어 십일조 없는 온전한 예배는 여하히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Köstenberger & Croteau, 2006). 곧 오늘날 십일조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외부에 증거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와 결단으로 보아, 만약 이러한 믿음의 봉헌이 없다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찬은 진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신령한 예배나 축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삼용, 2015).

다른 한편 십일조 봉헌은 역사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한 제사의 규례로서(Ketz, 1984),⁴⁾ 이는 레위기에서 땅의 1/10,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것의 1/10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레 27:30)⁵⁾ 정착되어, 지금까지 불변의 규레이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견고히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십일조 봉헌의 당위를 역설하고 있다(Abiodun & Eberечи, 2016).

나아가 신약에도 십일조는 결코 달라짐이 없다는 기사와 함께(마 23:23),⁶⁾ 이에 덧붙여 구약의 제도는 신약에 이르러 더욱 풍부한 예언의 성취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신약 이후로 오늘날 크리스천 또한 다름없이 십일조 봉헌을 하나님께 바치는 최소한의 것으로 알고, 때로는 그 이상 보다 풍성히 바쳐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박윤선, 1988).

요컨대 찬성론의 요의는 성서에 십일조를 바치지 말라거나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가 존

-
- 3)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8-10).”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구절은 개역개정판에 의한 것임을 참고한다.
 - 4)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20).”
 - 5)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레 27:30).”
 - 6)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재한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이처럼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규례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인 바에야, 십일조는 시대나 사회적 형편을 불문하고 성서의 규례로서 또한 하나님 명령으로서 반드시 봉헌해야 하며, 특별히 정성을 다한 십일조 봉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으로 봉헌한 것 이상으로 채워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채창락, 2009).

2.2.2 평가

찬성론은 교회의 강론이나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논고 내지 주장을 통해 일관성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절 교회재정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십일조 봉헌의 정당성 그리고 이에 깃든 자비와 박애정신의 강조와 더불어 그 용처 또한 명확히 분별하여 제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찬성론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본다. 곧 오늘날 교회위상이 세간의 따가운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감싸 안아야 할 처지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회의 외형적·물질적 성장이나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유관사업에 십일조를 임의로 전용하여 그 안에 담긴 본연의 정신과 용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찬성론의 맹점을 적시할 수 있다.

십일조는 본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든 구제와 구휼에 본연의 목적과 용처를 두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십일조의 취지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모양새와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다면, 또한 나름의 교회형편과 처지를 빌미삼아 임의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십일조에 담긴 정신을 왜곡하여 변용하는 것임은 물론, 교회의 존재가치와 사명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찬성론을 지지하고 있는 교회 대부분이 이러한 십일조 본연의 정신이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 십일조 봉헌의 대가는 봉헌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의 결과로 보응될 것이라는 것에 보다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이 다반사라고 할 때(김진석, 2010), 자칫 찬성론은 이른바 ‘기복신앙’(faith for blessing)에 따른 폐해는 둘째치더라도 보통의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이 사회로부터 교회의 존재이유와 이에 부합하는 사명을 스스로가 외면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결국 찬성론이 주장하는바 그 실질과 당위에 부합하려면, 자비와 박애에 모토를 두고 있는 십일조 정신의 강조와 함께, 성서에서 구제와 구휼을 위한 십일조 용처대로 이를 집행하려는 일대 전향적 활로를 담보해 두어야 그 신앙적 기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2.3 반대론

2.3.1 요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람(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십일조는(창 14:18-20),⁷⁾ 이후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종교적 규례로서 정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통해 규례화 되었다는 찬성론의 근거에 반대론은 특단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대론은, 십일조는 당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십일조 정신의 발달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결단으로서 응집될 때에야 비로소 본질적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이 성서의 기

7)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18-20).”

본적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일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화되어 나가는 것을 요건에 두고 각양의 공동체적 요구를 저변에 깔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반대론은 이에 덧붙여 현재 우리사회가 기독교 국가도 아닐 뿐더러, 국가가 각종 세금이나 특단의 정책으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십일조를 존속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Wittenberg, 2009),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우리 사회에서 각양의 조세의무를 힘겹게 부담하고 있는 보통의 크리스천에게 그 뜻에 반하여 과도한 짐을 지울 수 있는 폐해가 다분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구약의 규례로서 ‘할례’(circumcision)가 신약에 이르러 형해화 되었듯이, 오늘날 성서적·신앙적 시각에서 십일조의 새로운 해석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다(Budiselić, 2014).

한편 반대론 일각에서는 현재 십일조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곧 가난한 자·고아·과부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구제책으로서 용처를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차제에(신 26:12), 봉헌된 십일조 대부분이 교회외형과 치장에 소요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이처럼 소외된 자 또는 무거운 생활고에 짓눌려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십일조를 강요하고 있는 폐단은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마 25:40, 45),⁸⁾ 이는 공동체 전체의 구제와 구휼을 모토에 둔 십일조 본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 시대상황의 단편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십일조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한중호, 2007).

2.3.2 평가

반대론의 요의에서와 같이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규례로 탄생한 민족적 관습으로서, 이를 현시대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주장에는 일말의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빈곤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신적·신앙적 성장에 대한 열정은 크리스천이 지녀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때, 이처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하나님 명령으로서 이웃사랑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십일조 봉헌에 투영하여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에 구애됨이 없이 강조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처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론의 일각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각양의 세금을 거두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등의 취약계층에 다종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히 보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목으로 크리스천에게 또 다시 십일조를 봉헌케 하여, 이른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로부터 그들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Bailey, 1968).

그러나 위 반대론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신앙적 시각에서 국가의 사명이나 크리스천의 사명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밖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점은 내·외부적인 성장과 외형에만 심혈을 쏟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저마다의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크리스천이 자초한 이 시대 개신교를 향한 작금의 사회적 지탄을 야기한 원인이라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추상같은 말씀을 통해 일거에 배척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 25:45).”

(눅 11:42),⁹⁾ 십일조는 그 본연의 위상과 지위가 재정립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크리스천의 신앙적 양심에 적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여하히 존속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대의는 앞서 본대로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의 사명’이 아닐 수 없음을 시사한다.

2.4 절충론

2.4.1 요의

절충론은 성서에서 십일조 봉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집과 선민의 식의 고취를 위해 마련된 규례로서, 이는 소득이 없었던 레위지파와 소산이 불비했던 가난한 자·고아·과부 등의 분깃으로 특단의 용처가 구별되었다는 시각을 전제하고(민 18:21, 24, 신 26:12),¹⁰⁾ 현재 십일조는 이러한 본연의 구제수단과 특단의 용처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건축이나 유관사업에 전용되고 있음이 다반사라는 사실을 들어 앞선 찬성론을 비판하고 있다(막 13:1-2).¹¹⁾

나아가 절충론은 어떤 형태로든 십일조에 관한 성서상의 규례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설령 시대상황의 변천과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형태나 기능은 변할 수 있더라도 그 정신만큼은 결코 변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십일조는 크리스천 저마다의 신앙적 양심과 결단에 따라 봉헌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반대론의 일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Davis, 1987).

한편 절충론은 외견상 십일조 수익자이자 집행자로서 교회를 향하여, 십일조는 안팎으로 목회자 보수와 교회내의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우리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빈곤한 약자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십일조에 관한 찬반론이 대립하게 된 것은 모두가 십일조 봉헌의 당위만을 강조한 채, 이에 반하여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용처에 침묵하고 있었던 교회에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마 23:23, 눅 11:42).¹²⁾

요컨대 절충론은 십일조에 담긴 숭고한 박애정신을 계승하는 취지에서 용처를 명확히 구별하여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옹골게 감당하여야 함을 대의에 두고 십일조의 봉헌을 선량한 크리스천의 임의처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9)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눅 11:42).”
- 10)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 18:2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민 18:24).”
- 1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막 13:1-2).”
- 12)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눅 11:42).”

2.4.2 평가

절충론의 주장에 편승하여 일각에서는, 십일조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계층에는 봉헌을 강조하지 말아야 함에도 지금껏 그들에게 십일조의 봉헌을 강권한 교회의 처사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이에 빠져린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부문화가 확산된 국가에서는 대개 상류계층의 천문학적 기부를 자주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강신욱, 2010), 우리사회에서는 자신이 상대적 빈곤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욱 빈곤한 계층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경제적 급부를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있는 주체가 다수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별 구분은 시각에 따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으로 전향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초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를 칭찬하셨던 기사에서와 같이(막 12:42-44),¹³⁾ 그 형편의 곤궁한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가난하고 빈곤한 자의 신앙적 결단 또한 응당 값진 크리스천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면, 이러한 곤궁하고도 빈곤한 형편과 처지를 빌미로 십일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절충론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올바른 십일조에 대한 봉헌기준으로서 그것이 총소득에서 구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 이후의 소득에서 구분하여야 하는지를 따지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저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기사를 들어(마 22:21),¹⁴⁾ 과세 이후의 십일조를 권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또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1/10은 물론, 2/10, 3/10, 심지어 가난한 과부처럼 10/10 봉헌이 하등 문제될 것 없다면, 이러한 구분법은 십일조 정신을 왜곡한 채, 다만 이를 형식적 이해타산의 틀에 가두려는 처사로 보아 일체 무익한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절충론의 통설로서 십일조 봉헌을 저마다의 신앙적 결단에 두어 자칫 크리스천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특단의 시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III. 성서에서 십일조의 성격과 내용

3.1 개요

십일조를 일컫는 영어 ‘tithe’는 1/10, 곧 10%의 고어이다. 본래 십일조란 재산이나 소득의 1/10을 하나님께 바치는 구약시대의 관습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앞서 본대로 분깃이 없었던 레위지파와 소산이 불비했던 빈민의 생계지원에 목적을 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역사적으로 초기 크리스천들은 십일조 봉헌의 찬반에 편승하여 저마다의 견해가 분분하였으나, 다만 빈

13)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42-44).”

14)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 22:21).”

민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십일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인식만큼은 일치하였다. 나아가 공통한 견해로서 신약에서는 반드시 10%를 내야 한다는 가르침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에 교회는 십일조 봉헌을 강제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른 선한 일로 보아, 다만 크리스천의 일상에 강조할 수 있는 일련의 권면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미국이나 제반 유럽의 기독교계가 지향하고 있는 십일조 정신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Jose & Moore, 1998).

그러나 십일조는 성서상의 규례이자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십일조를 1/10,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가능할 수 없는 특단의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은 십일조에 깃든 박애정신을 일괄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십일조를 확정함에 있어 봉헌하는 자의 환경이나 처지 그 밖에 능력에 따른 본연의 셈이나 이에 깃든 정신을 획일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외견상 십일조는 어쩌면 1/10을 넘어 그 이상의 몫과 사명을 권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시각을 배경에 두고 이하 성서상의 십일조에 관한 성격과 그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십일조에 깃든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부각해 두고자 한다.

3.2 감사와 자의적 결단으로서 십일조

앞서 본대로 성서에서 십일조가 처음 등장한 기록은 아브람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창 14:20). 당해 기사는 메소포타미아 4명의 왕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을 빼앗고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노략하였을 때, 아브람이 그들을 뒤쫓아 롯과 그의 재산 모두를 다시금 되찾은 사건에서 비롯된다. 당시 아브람은 승전 후 귀환의 도상에서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성대한 영접과 축복을 받고, 이에 대한 보응으로 자신이 취한 것에서 1/10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성서에 기록된 최초 십일조의 모습이다(Snoeberger, 2000).

본래 아브람은 가나안에 정주한 이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창 12:7-8, 13:4, 18, 22:9 등), 당해 기록을 눈여겨 볼 때,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봉헌한 십일조가 단지 이때뿐인 일회적 봉헌이었는지 아니면 그간에 그가 하나님께 줄곧 구별해 드린 지속적 봉헌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로서 그때까지 십일조가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었다는 기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까닭에, 어느 경우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람의 감사와 헌신이 표창된 신앙적 결단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브람과 같은 처지에서 십일조의 형태는 이후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곧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한 후,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고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던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축복을 받은 이후 그가 베고 자던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벵엘이라 칭할 당시 서원에 두었던 십일조가 그것이다(창 28:20-22).¹⁵⁾ 여기서 야곱의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면, 그때 가서야 봉헌하겠다는 소위 ‘정지조건부’(condition precedent) 십일조로서 앞선 아브람의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야곱의 십일조 또한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나

15)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20-22).”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다짐이자 서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3.3 규례로서 십일조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나(출 20), 그 밖의 명령에는(창 34) 십일조에 관한 기사를 일절 찾아볼 수 없지만, 제사법전으로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로서 땅의 소산으로서 곡식이나 나무열매의 1/10, 또한 소나 양의 1/10은 ‘여호와와 성물’(LORD's holy things)로서(레 27:30, 32),¹⁶⁾ 이를 구별하여 바칠 것을 명하고 있다. 나아가 민수기에서도 여호와와 성물로서 1/10 외에도 또 다른 1/10을 비롯하여(민 5:4, 15, 28:5, 13, 21, 29, 29:4, 10, 15 등), 이례적으로 2/10(민 15:6, 28:9, 20, 29:3, 9, 14 등), 3/10(민 15:9, 28:12, 20, 28, 29:3, 9, 14 등), 그 밖에 1/50까지 규례로 두고 있기도 하다(민 31:30, 47).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른바 연단의 시기 중에(성주진, 2001), 규례로서 십일조는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엿보이고 있는데, 외견상 이들 모두가 십일조의 봉헌기준과 내용을 제각기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십일조를 이스라엘의 제사의식 또는 규례로 선포하여, 이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족애를 견인하고 또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관습이었다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규례로서 십일조의 용처는 앞서 본대로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장을 포함하여 가난한 자·과부·고아·이방인들의 삶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에 두었는데, 이는 매 3년마다 따로 또 떼어낸 십일조와 함께 특별히 강조되었다(민 14:28-29).¹⁷⁾ 이 경우 수혜자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도 다름없이 십일조의 규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더불어 ‘번제’(burnt offering)·‘속죄제’(sin offering)·‘속건제’(reparation offering)·‘소제’(meat offering)·‘화목제’(peace offering) 등의 형식과 절차에도 병합되어(레 1-7),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십일조와 함께 이상의 제사의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물도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낱알이 구별하여 봉헌해야 했다(심종석, 2015).

3.4 공동체의 축제자원으로서 십일조

한편 구약 신명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십일조의 본질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곧 십일조를 앞서 본 분깃이나 유산 그리고 소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 밖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례화 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으나, 특이할 것은 이에 더하여 십일조를 가족이나 공동체의 축제자원으로 소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것에 견주어 매우 이례적인 또 다른 십일조의 용처임을 살필 수 있다(신 14:22-29).¹⁸⁾

16)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 27:30),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레 27:32).”

17)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8-29).”

이처럼 공동체의 안위와 축제의 자원으로 십일조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규례화 하고 있는 신명기 기사는 앞선 아브람 시대처럼 십일조가 개인의 결단에 의한 헌신과 감사의 표시나, 하나님의 성물로서 따로 떼어 구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용처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밖에 구제수단이나 공동체의 화목과 안위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체의 결속적 취지에서의 쓰임새를 덧붙이고 있음을 바로 볼 수 있다(Wittenberg, 2009).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십일조의 쓰임새는 구약말기에 이르러 저마다의 이기적인 삶에 희생되어 급기야 공동체의 신앙적 성장을 위한 규례적 당위가 소멸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이에 분깃이 없거나 소외된 자들을 더욱 곤고한 형편으로 내몰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본래 십일조에 담긴 신앙적 정신은 시나브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 자신의 소산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물 또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야마는 패악이 널리 횡행하였는데, 이러한 십일조 정신의 와해를 목도하고 이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 선지자가 다름 아닌 앞서 본 말라기이다(말, 3:8-10).

이러한 형편은 공동체 제사집전을 책무에 두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로 하여금 그들 지위를 남용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곧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헌금의무를 집요하게 강제하고 이들로부터 바쳐진 십일조나 헌금을 편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거나, 성전치장에 골몰하는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게 하였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과부의 빈곤한 생활을 외면하고 가산을 삼켜 이를 자신들의 안위와 지위를 위해 탕진한 그들의 행사를 강하게 힐책하신 이유가 되었다(막, 12:38-44, 13:1-2).

3.5 규례에 부가된 또 다른 의무로서 십일조

구약시대에 소산의 1/10을 떼어 제사장지파로서 레위인의 분깃에 둔 관습은(레 27:30, 민 18:21, 신 14:22-27 등)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면면히 유지·계승되었다. 신약시대 이른바 ‘외식자’(hypocrites)로서 바리새인들은 외견상 십일조 규례를 보다 엄격히 지키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박하·회향·근채 등 보통 간과해도 무방했던 향신료 내지 소소한 식물에까지도 십일조를 이행하고 있었으나(마 23:23), 이에 반하여 규례의 핵심으로서 공평·공홀·정의 등에 관해서는 일절 침묵하고 있었다. 곧 소소한 일상에는 열심이었으나, 규례의 핵심문제에 관해서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십일조를 엄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으나, 다만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십일조에 우선하여 규례의 본질로서 정의·공홀·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 또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23:23, 눅 11:42).

18)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삼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2-29).”

요컨대 예수님께서서는 형식적인 규례의 준수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로서 공평의 실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등을 등한시 하는 것은 마땅히 크나 큰 죄라는데 요지를 두셨다(황봉환, 2014). 이는 근본을 제쳐두고 지엽만을 중히 여기는 것은 여하히 죄가 된다는 가르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비추어(막 13:2), 오늘날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도외시한 십일조, 현금강요나 강제 및 교회치장과 건축에 소요되는 십일조, 정의와 공평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근본정신이 등한시 된 십일조, 곤고한 자들을 외면한 채 오로지 형식과 규례만을 좇아 행하는 십일조, 성전과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편취되거나 전용되는 십일조, 아브람과 같이 신앙적 결단으로서 감사와 헌신이 아닌 기복의 대가로 봉헌되는 십일조 등은 자칫 근본을 버리고 지엽을 중히 여긴 죄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십일조의 참모습은 구약시대보다도 더욱 가중된 책무가 덧붙여져 있다고 본다.

IV.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4.1 공평과 정의의 실현

앞서 본대로 성서에서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십일조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각각의 함축된 의미를 표창하고 이를 규례적·신앙적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공히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본다.

요컨대 십일조 봉헌의 당위는 공동체적 규례와 관습 그리고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당위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에 절대 순종하여야 할 공동체 또는 크리스천의 자세와 사명이 그 핵심이라고 할 때,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담보된 십일조의 봉헌은 크리스천 된 저마다의 신앙적 양심의 발로로 보아 결코 무너지거나 형해화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신약시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회개를 위한 침례를 집전할 당시, 무리를 향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굶주린 자에게 구제하여야 한다.”는 설교, 세리들을 향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설교, 군인들을 향하여 “강탈하지도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설교 등에 함축되어 있는 신앙적 의미를 유추해 볼 때(눅 3:10-14),¹⁹⁾ 십일조에 깃든 본연의 참모습 또한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환난 중이라도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약 1:27).

결국 오늘날 저마다의 ‘담세력’(taxable capacity)에 따라 각양의 조세의무의 부담을 통해 소외된 자나 빈곤한 자에 대한 복지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구제와 구휼을 빌미로 십일조 봉헌을 의무화하고 있는 형편을, 이른바 이중과세로 취급하고 그 부당성을 적시하고 있는 주

19)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눅 3:10-14).”

장은, 예컨대 바리새인과 같이 외견상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별반 문제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러한 발상이나 주장이 세상의 역할이나 크리스천의 사명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수준에서의 공평과 정의실현을 표창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한 파렴치한 주장이라 보아 응당 죄로 취급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십일조 정신에 담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하나님 공의실현에 부합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은 그 기준이, 이 세상이 돌보고 있거나 돌보려는 이해에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돌보려거나 돌보려는 이해에 두고 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때, 크리스천의 사명은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보다도 더욱 가중된 기준과 잣대로서 평가되고 실현되어야 그 참다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대로 지업은 물론이고 근본을 보다 중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같은 크리스천의 사명은 오늘날 크리스천 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마 5:14-16).²⁰⁾

4.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성취되었고, 이로써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크리스천은 더 이상 십일조 형식과 절차에 종속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의무는 보다 가중되었다고 본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바울을 통해, 이른바 정식연보제도를 제정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재정정책으로 세우게 하시고, 이로써 모든 새 언약 백성에게 시행토록 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십일조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이후 크리스천은 이러한 정식연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본래 십일조에 담긴 뜻을 계승하기에 이르렀다(김인환, 2014). 그 결과 크리스천은 비록 소득의 1/10이라는 수치를 기본에 두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고전 16:2), 동시에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으로(고후 9:7)²¹⁾ 봉헌해야 함은 마땅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김영철, 1986).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십일조의 용처는 앞서 본대로 그 무엇에 앞서 구제와 구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로써 크리스천의 사명은 이러한 십일조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용처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현재 십일조는 교회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헌금이지만, 통상의 경우 용처는 매우 혼탁하고 불분명하게 집행되고 있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성전치장이나, 오늘날 교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나, 교회나 목회자의 임의처분이나 전용, 그 밖에 교회의 위상과 지위를 가일층 제고하려는데 집행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2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21)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설령 일각에서 교회와 공동체는 매한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당해 집행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면, 작금의 건축헌금·구제헌금·선교헌금 그 밖에 경제적 궁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요되는 장학헌금·의료헌금·봉사헌금 등은 여하히 본래 십일조의 용처나 지위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때, 이 경우 십일조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야 말 것임이 자명할 것이다.

요컨대 십일조는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려고 결단한 일꾼양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것이 신·구 언약의 공통한 명령이자 규례로 보아, 그 용처는 명확히 구별하고 선별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의 바람직한 용처는 앞서 본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신앙적 대의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4.3 목회자와 공동체의 생계보전수단

구약시대 십일조는 제사장지파로서 레위인의 몫으로 구별되었다. 당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허락하신 특권은 예배집전과 이스라엘로부터 각출된 십일조 취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각출된 십일조 취득에도 레위인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십일조 및 각양의 제물을 다름없이 봉헌하여야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비하여 그 봉헌에 따른 절차와 형식이 보다 까다롭게 요구되었다(심종석·조현정, 2015).

오늘날 목회자는 예배집전과 말씀전파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난날 레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은 선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학에 포함하여 마땅히 십일조에 근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민 18:21, 24, 26).²²⁾

그렇지만 여기서 바로 볼 것은, 교회회계는 ‘현금주의’(cash basis)를 수용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자기검증이 취약하고,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다분하여 이에 전 방위적인 재정공개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는 목회자 소득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시사하는데, 당해 시사점은 교회재정공개는 목회자의 신앙적 위상제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목회자 납세의 전향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렴하고 근검한 목회자의 위상정립 등의 순기능적 역할제고 등에 있다(심종석·조현정, 2015).

결국 교회재정공개는 십일조의 용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십일조 봉헌의 당위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 및 크리스천의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취지에서 그 용처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비로소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용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회재정공개에 불비에 가려져 있다면,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신앙적 목적달성불능에 따른 시험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고, 달리 십일조를 강권하고 있는 교회입장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구별된 용처 없이 다만 교회가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때마다 거두어 그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전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는 비유컨대 건축헌금으로 거두어 이를 목회자의 사례비나 구제비에 충당해도 하등의 문제가

22)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 18:2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민 18:24).”,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민, 18:26).”

없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고, 따라서 오늘날 각양의 헌금명목은 그 일체를 십일조라는 명분으로 통합하여도 결코 문제될 것 없다는 자가당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십일조는 앞서 본 사회적 약자의 구제책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내의 연약하고 곤고한 자 및 목회자의 생계보전의 수단으로서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이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도 부합하는 십일조 본연의 참모습일 것이라 본다.

4.4 선교와 공동체의 신앙적 유익을 위한 재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지상명령으로서(행 1:8),²³⁾ 이는 크리스천의 사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 및 교역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선교에 필요한 재원, 목회자 양성과 장학을 위한 재원, 공동체의 신앙적 유익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십일조가 감당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현재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과세입법이 예고된 시점에서, 한편에서는 전체 교역자 중 약 70%가 기본생활비(2014년 4인 기준) 월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는 복지차원에서 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해 과세방안이 조세형평상 고소득 목회자일수록 유리하고 저소득 목회자일수록 불리한 제도라는 저항이 들끓고 있기도 하다(심종석·조현정, 2015).

이러한 주장과 저항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처사로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때, 이 시대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본대로 규례에 부가된 또 다른 의무로서 십일조의 본질과 기능이 저마다의 이해타산에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지분을 요구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처사로 탈바꿈하여, 이제는 교회와 크리스천이 하나님 공의에 반하여 이 사회에 저마다의 이해를 추구하고 그 일신을 의존하려는 파렴치한 의도로 보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가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이유가 모름지기 이처럼 가진 자는 더욱 가지려고 하고 그러기에 곤고한 자는 더욱 곤고해 질 수밖에 없는, 곧 공평과 정의에 반하는 불의에 있었다고 보면, 작금의 이러한 처사 또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본다.

요컨대 작금의 교회와 크리스천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혹여 모두가 세상 앞에서도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고, 십일조 앞에서도 이해를 추구하려는 이중적 심사를 엿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심사에 사로잡혀 있다면, 십일조 본연의 참모습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가진 자로서 대형교회의 이해에 남김없이 희생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러한 형국은 모두가 십일조의 용처가 변용 또는 왜곡되어 야기된 실상임에 분명할 것이다.

V. 맺음말

2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십일조 용처는 그 옛날 하나님께 행했던 각양의 제사의식과 마찬가지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그 본연의 정신대로 용처는 구제와 구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또 다른 십일조의 참모습은 이 세상이 구현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모습으로 그 빛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1/10이든 그 이상 이든 그 이하이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마다의 신앙적 양심과 결단에 의지하여 처한 형편과 능력에 따라 이 세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준엄한 사명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빛진 자들이(마 5:13-16),²⁴⁾ 오늘날 십일조를 내야한다느니 내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심사를 엿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패악한 단편이라고 본다. 이러한 형편은 비유컨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고후 12:9)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여하히 만족할 수 없고, 그 옛날 아간의 심사를 앞세워(수 7) 말라기 선지자가 그토록 지탄했던바 그대로 또 다시 재현된 패악으로서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각양의 이해를 보전하고 추구하려는 불의한 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세상을 감싸 안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크리스천의 사명은 하나님의 추상같은 공의가 표창된 공평과 정의실현의 진수라 할 때, 또한 이 세상을 핏 값으로 사신 보혜사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본말이라 할 때, 이 세상을 향한 구제와 구휼의 정신은 마땅히 십일조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십일조가 저마다 소산에서 구별해 떼어 낸 1/10로서 취급되지 않고,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신앙적 결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는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의 마땅하고도 숭고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고 할 때, 교회 또한 이러한 십일조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이 세상을 향해 그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1/10은 물론, 2/10, 3/10을 넘어 때로는 과부의 결단을 뒤쫓아 우리 삶의 전부로서 10/10까지 말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10). 기부에 대한 누가의 관점. 로고스경영연구, 8(2), 255.
 김수나 (2008). 종교인 과세 논란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 논 주니어, 2008(3), 110-115.
 김유찬 (2010). 소비세 분야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실현. 조세학술논집, 26(1), 115-118.
 김인호 (2015). 십일조를 넘어. 행복한 부자연구, 4(2), 47-68.
 박윤선 (1988). 주일 성수와 십일조 헌금문제. 신학정론, 6(1), 148.
 성기문 (2003). 설교를 왜곡시키는 돈의 힘. 기독교사상, 47(2), 156-165.
 성주진 (2001). 신명기의 보응: 보응사상의 한계와 용해 그리고 기능. 신학정론, 19(1), 20.
 심종석 (2015). 스스로 계신 이의 약속. 삼영사, 490-512.

2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 심중석·조현정 (2015). 목회자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비평. *로고스경영연구*, 13(2), 43-62.
- 원용국 (2007). 성경의 십일조 연구. *성경과 고고학*, 54, 3-26.
- 이계준 (1968). 사랑과 정의의 관계성. *기독교사상*, 12(5), 44-52.
- 이중록 (2006). 십일조로 이루는 살롬: 신 26:12-15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32, 83-107.
- 이춘석 (2014).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새가정*, 672, 53-57.
- 장재봉 (2015). 십일조는 주님을 웃게 합니다. *사목정보*, 8(2), 16-21.
- 전삼용 (2015). 십일조와 구원의 관계. *사목정보*, 8(2), 22-25.
- 정재영 (2011). 한국 사회에서 교회 헌금의 의미. *종교와 사회*, 3, 39-70.
- 채창락 (2009). 본당에서의 십일조 봉헌 실천. *사목정보*, 2(7), 미래사목연구소, 28.
- 최종고 (1981). 법과 종교와 인간. *기독교사상*, 25(10), 186.
- 한중호 (2007). 십일조: 신앙의 원칙인가 시대의 관습인가. *기독교사상*, 51(6), 201-207.
- 황봉환 (2014). 야고보서에서 부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2(4), 131-146.
- Abiodun, A. & Eberechi, A. V. (2016). Tithe Payment in the Christian Faith: A Bibl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 2(1), 18.
- Bailey, J. A. (1968). Basic Tax Reform.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54(2), 127-133.
- Brunner, E. (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NY: Harper & Brothers, 127-128.
- Budiselić, E. (2014). The Role and the Place of Tithing in the Context of Christian Giving Part 1. *Kairos*, 8(2), 143-162.
- Chodorow, A. S. (2007). Ability to Pay and the Taxation of Virtual Income. *Tennessee Law Review*, 75, 695.
- Davis, G. B. (1987). Are Christians Supposed to Tithe. *Criswell Theological Review*, 2(1), 85-97.
- Jose, M. L. & Moore, C. K. (1998). The Development of Taxation in the Bible: Improvements in Counting, Measurement and Computation in the Ancient Middle East.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25(2), 63-80.
- Ketz, J. E. (1984). Tithing & Income Measurement.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11(2), 129-132.
- Köstenberger, A. J. & Croteau, D. A. (2006). Reconstructing a Biblical Model for Giving: A Discussion of Relevant Systematic Issues and New Testament Principle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6(2), 237-260.
- Snoeberger, M. A. (2000). The Pre-Mosaic Tithe: Issues and Implications. *Detroit Baptist Seminary Journal*, 5, 76-87.
- Wittenberg, G. (2009). The Tithe-An Obligation for Christians? Perspectives from Deuteronom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34, 82.

The Essential Function and Role of Tithing for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Justice as a Christian Mission

Chong Seok Shim*

* Professor, Departmen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 cyrus@daegu.ac.kr

<Abstract>

This study is valuable as compares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justice based on conventional wisdom with the essential functions and roles of tithing. Its purpose was to present the noble spirit and value of tithing that this age could accept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The key poin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the present tithing and the practice method of tithing which is desirable as christian mission today and the concret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tithing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It should also be used for relief expenses and all other works related to it in the noble spirit of tithing. Second, the present true form of tithing must be carried out more heavily than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justice in this age. In other words, one-tenth or more, or less, we must give to God with generosity and joy and joy in accordance with christian faith and determination. Third, the core of true christian' mission is in the realization of equity and justice based on God's love. Therefore, the desirable spirit of relief for this world must be carried out through tithing. Fourth, the church should proudly display its mission and role in accordance with this spirit of tithing.

Key words : Tithing, Equity, Justice, Christian' Mission, Relief

경영(로고스A)/04/논평문/

■ 논 평 ■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십일조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윤상윤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본 논문은 저자가 요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십일조에 관한 본질적 기능과 그 안에 담긴 숭고한 역할을 추론하여, 신앙적 차원에서 이것이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공평과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십일조의 바람

직한 봉헌자세와 실천방법을 제시한 논문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 그간 각계에서 십일조에 관한 찬반론 내지 절충론은 서로가 타협할 수 없는 한계에까지 이르러 크리스천 저마다의 심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때, 작금에 이러한 논고를 지나치지 않고 성서적, 신앙적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성서상 십일조에 관한 규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십일조의 무익을 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그러나 십일조에 담긴 올바른 정신과 그 의미가 바로 서지 못한 차체에 오로지 십일조에 관한 당위만을 역설하는 것은 이른바 하석상대(下石上臺) 식의 괴리라고 할 때, 본고에서 논자가 주장하고 있는바 십일조에 담긴 정신과 그 의미를 분별하는 것은 이 시대 크리스천 앞에 매우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 본다.

○ 또한 성서에서 우리에게 일컬어 교훈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실현은, 마땅히 사회적 통념에 기한 그것보다도 보다 강도 높고 수준 높은 실천적 당위를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에 두고 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때, 그 실천적 수단으로서 십일조는 매우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볼 것이다.

○ 이 사회를 보듬고 계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사명에 있어 십일조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십일조의 수혜자로서 교회는 봉헌하는 자 그 이상의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로 교회는 그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그 본말은 십일조의 바람직한 용처를 재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본다. 이는 본 논문의 실질적 가치가 매우 유의함을 함의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 바로 볼 것은, 십일조 본연의 모습이 바로서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따지고 볼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를 바로 세워야 바람직 할 것이냐 하는 논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시끄럽고, 각양의 추한 모습으로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을 어떻게 곧추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 민감한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뜻 깊은 연구결과를 제시해 준 발표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한가지 현실적 문제에 기반을 둔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의 예외없이 관습적으로 가구소득을 가구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공동체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남편은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세후소득에 대한 십일조를 봉헌하기를 원했고 아내는 세전소득에 대한 십일조를 봉헌하기를 원해 다툼이 생겼고 결국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렀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문을 드러본다.